

푸틴 정적 넴초프 피살...러시아 정국 혼란

“크렘린궁 살해 책임 있다”

모스크바 등 곳곳 수만명 시위

당국, 대규모 경찰·군병력 배치

러시아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55) 전 부총리의 피살로 인해 러시아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1일(현지시간) 이틀 전 피살된 넴초프 전 부총리를 추모하는 거리행진 행사가 열렸다.

모스크바에선 주최 측 추산 5만명 이상의 시민이 손에 넴초프의 사진과 꽃, 초 등을 들고 나와 크렘린궁이 야권 지도자의 살해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넴초프가 1990년대 주지사로 일했던 중부 도시 니즈니노보고로드 등에서도 추모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넴초프의 사진과 함께 “나는 두렵지 않다”, “투쟁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걸었다.

하원 의원 드미트리 구트코프, 넴초프와 함께 반정부 운동을 펼쳤던 미하일 키시야노프 전(前) 총리, 또다른 저명 야권 지도자 일리야 아선 등이 행렬을 이끌었다.

시위대는 “푸틴없는 러시아”, “잊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총탄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 행렬이 피살 현장에 이르자 카시야노프 전 총리가 시위대를 상대로 연설했다. 카시야노프는 “넴초프 살해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들은 자유와 진실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시위에 참가한 여배우 라다 네그롤은 “넴초프 살해 배후는 명백히 크렘린”이라며 “설령(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살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첨하려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에서 1일(현지시간) 수많은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이틀 전 피살된 야권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를 추모하는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크렘린궁이 넴초프의 살해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측근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언론을 통해 중요성을 불러 일으킨 것 등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약 1만6000명이 모스크바 추모행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집회 참가자가 5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은 시위 현장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과 대테러부대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 가두행진 현장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간 큰 충돌은 없었다. 야권은 넴초프가 살해되기 전 모스크바 남쪽 지역에서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등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거리행진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피살 사건 이후 시위 장소를 시내로 옮겼다.

모스크바 시 당국은 이날 추모행사를 공식 허가했다.

모스크바 이외에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약 600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중부도

시 니즈니노보고로드, 시베리아 도시 노보시비르스크 등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렸다.

한편, 넴초프는 지난달 27일 저녁 11시 30분께 크렘린궁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러시아 초대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 후반 제1부총리를 지낸 넴초프는 그동안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와 부패,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 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크렘린과 대립각을 세우왔다. /연합뉴스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어제 새벽 남포서...軍 당국 “한미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반발한 듯”

북한이 2일 새벽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새벽 6시32분부터 6시41분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각각 495km, 493km였다”고 밝혔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4.3, 최고 고도는 134km였다. 군 당국은 사거리

와 궤적,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스커드C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연습 및 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판단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다양한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 남쪽 남포에서 동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 지역을 가로

질러 원산 호도반도를 지나 갈마반도 남쪽 50km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수뇌부의 제거와 평양점령 목표를 위한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북침실전연습이 개시된 이상 엄중함 사태를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며 독수리 훈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된다.

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중국 ‘양회’ 시작

〈전인대·정협〉

시진핑,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 제시

대외적으로 ‘강한 중국노선’ 가속화 전망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약 보름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이를 앞서 3일 개막하는 정협은 개막 하루 전날 이날 오후 뤼신화(呂新華) 대변인이 주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의 회기와 주요 논의 주제 등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에 답변할 계획이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2일 양회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중국이 양회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뤼 대변인은 지난해 3월 2일 정협 기자회견에서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처벌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 “당신도 잘 알면서...”라고 답변함으로써 작년 양회의 최고 유행어를 탄생시킨 바 있다.

올해 양회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의 국정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으로 ‘강한 중국노선’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뉴노멀’(New normal·신상태(新常态)) 시대를 맞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7% 안팎으로 낮추고 질적인 성장 추구에 주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구체적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다.

대내적으로는 반(反)부패, 정치 개혁을 비롯해 민생복지, 스모그 대책을 포함한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정협에는 이미 전국에서 집결한 위원들로부터 400여 건의 건의안이 공식 접수돼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의안의 주제는 ‘뉴노멀’과 ‘일대일로’ 국가전략적인 주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취업, 양로, 의료, 교육 등 민생과 관련된 주제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신문망은 전했다. /연합뉴스

日 화산폭발 섬 16개월째 팽창

오가사와라제도 500m지점~도쿄돔의 52배 크기

일본 해저 화산폭발로 형성된 섬이 16개월째 팽창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일본 해상보안청 관측자료를 인용해 2013년 11월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니시노시마(西之島) 남남동쪽 약 500m 지점에 화산폭발로 생긴 작은 섬이 근처 다른 섬을 삼키면서 계속 팽창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이 지역에 관측기를 보낸 해상보안청은 새로운 섬 면적이 도쿄돔의 52배 크기인 2.46㎢이며 분당 5~6차례 분출해 계속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화산폭발로 섬이 생겼을 때 과학자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용암 분출을 계속하면서 존속하고 있다. 일본에서 해저 분화로 섬이 생긴 것은 27년 만이었다.

이곳은 원래 북부에서 알래스카~시베리아~뉴질랜드 남부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수동 남양빌라 지하상가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1억5천만원정도
- 노래방, 탁구장, 골프연습장, 호프, 독서실 등 적합
- 급매가 - 62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1대1 실전 사례 교육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